“건강 관리하고 봉사하며 심신도 키워요”

생명나눔 야구단

교사 · 불암사 신도 등 20명 사회인 구성
일면 스님 원력으로 출발, 신행 활동도
창단 첫해 4강…수 차례 우승 최강기량

새벽에 흩날린 눈으로 지면이 꽝꽝 얼어붙은 12월 중순의 주말,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남양주 한 야구장에 ‘야구인’들이 모여들었다. 야구를 좋아하는 스님과 불자들로 구성된 ‘생명나눔 야구단’ 단원들이다.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며 경기를 준비한 생명나눔 야구단은 연습경기에서 상대편과 열띤 경합을 펼쳤고 5:3으로 역전 우승했다. 얼어붙은 날씨에 피곤이 가시지 않은 주말 오전에도, 선수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찼다.

생명나눔 야구단은 야구를 좋아하는 스님과 불자들로 구성된 사회인 야구단이다. 2009년 10월 1일, 불암사 회주이자 야구팬 일면 대종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의 원력에서 출발한 ‘불암사 불일회 야구단’이 그 시작이다. 2011년부터는 사회인 야구리그인 남양주리그에 속해 본격적인 경기를 펼쳐왔다.

일면 대종사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재직 시절,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스포츠 포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스포츠 선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스포츠 포교 역시 포교의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창단 당시 ‘불암산 불일회 야구단’에는 프로야구 스타 출신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광은 전 LG트윈스 감독, 최정기·배재고 야구부 코치 등이 대표적이다. ‘불암산 불일회 야구단’은 사회인 야구단 창단 첫해 4강전에 올랐고, 이후 여러 차례 통합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강의 기량을 선보였다.

올해 초, 외연을 넓히기 위해 ‘생명나눔 야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불암사 신도와 광동학원 교직원을 주축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20~60대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MBC 청룡 투수 출신 야구해설위원 이광권 위원이 감독을 맡아 20여 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

야구는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상당한 체력 소모를 요구하는 스포츠인 만큼, 운동과 체력 관리가 필수다. 단원들은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해 체력을 유지하며 건강관리에 힘쓴다. 경기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한다. 새해나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부족한 사찰 일손을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돕는다.



또 함께 전국 사찰로 성지순례를 떠나기도 하면서 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열성 불자가 아니어도 어느새 사찰에 가는 일이 일상이 됐다.

단원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관리, 사람들과의 교류에도 이렇게 불교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큰 강점으로 꼽았다. 이런 불교 활동은 팀원들 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단원들의 설명이다.

장일형 단원은 “경기 중에 땀 흘리며 집중하는 과정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 “불교포교, 친목도모, 신행활동 강화라는 생명나눔 야구단 창립 목적에 맞게 꾸준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권 감독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재미있는 야구를 하고 싶다”면서 “전국의 불자들이 함께하는 사회인 야구리그를 꿈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즐겁게 운동하면서 신행활동도 하고, 스님을 모시고 선행하면서 불교를 많이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목표”라면서 “조금더 욕심을 내자면 스포츠인만큼, 2025년에는 우승의 기쁨도 맛보고 싶다”고 말했다.

남양주=임은호 기자

화살에 담은 中道心 “안정돼야 성장해요”

김동건 궁사(弓師)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반한 國弓
처절한 첫 실패, 수행정진의 시작
결과 집착 버리고 찾은 中道 자세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건 당연히 메달권이지”라고 단언하는 종목이 있다. 바로 양궁. 일정한 거리 밖의 과녁에 화살을 맞추는 경기인 양궁은 환경과 선수 개인의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아 편차가 크다. 이런 스포츠 종목에서 한국인들이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 뿌리를 ‘국궁(國弓)’에서 찾을 수 있다.

‘뿌-’하는 뱃고동 같은 알림 소리가 너른 대지를 채운다. 이것은 145m 거리의 과녁을 맞추면 들리는 소리. 국궁의 과녁은 점수판이 아닌 ‘목표’다. 정중앙과 외곽 중 어디를 맞추든 뱃고동을 울려 궁사에게 목표를 맞췄다고 알려준다. 경주 호림정에서 만난 22세 김동건 학생은 “오늘따라 화살이 과녁을 잘 찾아가네요”라며 웃어보였다.

김동건 학생은 동국대 WISE캠퍼스 중앙동아리 ‘동궁(東弓)’ 궁사다. 사극 〈선덕여왕〉에 등장한 활 쏘는 인물에 빠져든 동건 학생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국궁 동아리에 가입, 궁사로서 삶을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불자인 그는 스포츠보다는 수행의 방편으로 활을 쏜 지 3년 차에 다다른다. 수많은 국궁 대회의 순위권을 차지하는 동안 그는 ‘중도(中道)’ 찾는 법을 터득했다고 말한다.

국궁 동아리에 가입하면 몇 주간 활의 시위를 거는 방법, 궁사로서 몸과 마음의 자세 등을 배운다. 화살 쏘는 법도 배우지만 처음부터 내 뜻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게 동건 학생의 설명. 겨우겨우 145m 밖의 과녁을 맞춰 ‘뿌-’ 소리를 들으면 해냈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밀려온다.

집중과 노력으로 첫 ‘몰기(국궁 궁사에게 주어지는 화살 다섯 발을 모두 과녁에 명중시키는 것)’를 성공하자 동건 학생은 전국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궁사로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차올라 대회에 접수했다. 매 주말마다 궁장에서 훈련하고 집에서도 몸을 단련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리고 대회 당일, 선수 자리에 서자마자 긴장감이 몰려왔다. 머릿속에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훈련을 도와준 선배랑 사부님께 부끄러울텐데’ 등 고민과 걱정이 밀려들어왔다. 결국 화살 단 한 발도 못 맞추고 떨어지고 말았다.

동건 학생은 당시 문제점을 스스로 분석했다. 잘해야겠다는 욕심과 선배들에 대한 부러움, 떨어졌을 때 창피함…. 그는 “‘첫술에 만족할 수 없다’는 말과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精進)’의 중요성을 깨달아 ‘계속 정진하자’는 생각으로 대회 이후 더 열심히 훈련했다”고 말했다.

훈련을 거듭하며 동건 학생은 ‘내려놓음’을 배웠다. 그는 “‘과녁을 반드시 맞추겠다’ ‘순위권에 들겠다’는 생각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안정적으로 임하고자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연연하지 않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이후 대회부터는 순위권을 놓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되 본인을 믿어야 한다는 불교 교리에 감명 받았던 동건 학생은 국궁을 상과 상금을 위한 스포츠가 아닌 ‘중도’를 찾는 수행 방편으로 삼았다. 이후 집중력이 향상되고 교우 관계까지 좋아졌다. 그는 “취미로 시작한 국궁을 통해 불자로서 인생의 자세를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앞으로도 계속 불자이자 궁사로서 삶을 다짐한 동건 학생은 과녁의 어디를 맞춰도 ‘너 잘했다’고 인정하는 국궁의 기준이 성과를 위한 편법보다 중심을 찾는 삶의 마음가짐을 가르쳐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중도라는 불교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국궁을 평생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경주=김가령 기자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회 주 상 진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벽 산
교 무 효 능
서 무 효 진
대 중 효 성, 일 겸, 일 준
수 호, 수 담, 일 월, 일 산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관리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관리주임 황재훈(무영)
관리주임 공성희(여진)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해 경
효 능
최종남, 류기석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